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성스러운 악당들 [사사기 3:12-30]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2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시니 그들이 대적하게 하시매 13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14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십 팔년을 섬기니라 1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16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17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던라 18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19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20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21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22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던라 23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24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25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었던라 26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27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며 28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29 그 때에 모압 사람 일만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었던라 30 그 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매 그 땅이 팔십년 동안 태평하였었던라

웃니엘, 8년간의 억압 끝에 만난 첫 번째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지만 웃니엘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적을 보내셨습니다. 이번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말렉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들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로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의 상징을 보여주는 여리고 지역에서— 이들에게 거의 18년간 억압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울 자를 보내십니다. 왼손잡이 암살자 에훗입니다. '왼손잡이'는 문자 그대로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인 에훗은 '내 오른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왼손잡이는 장애가 있고 결함이 있는 약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말이 어눌했고 사도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즉흥적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다혈질로 알려졌으며 마태는 세리였고 시몬은 정치적 극단주의자였습니다. 에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며, 실제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스라엘이 바라던 구원자 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능한 일인지 아닌지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실 것 인지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1)조니 에릭슨

1) 조니 에릭슨: 17세에 다이빙 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유명한 복음주의자이자 구주화가, 장애인 인권활동가 https://en.wikipedia.org/wiki/Joni_Eareckson_Tada

26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6-29).

이스라엘의 적 에글론은 이스라엘로부터 걷은 조공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였습니다. 은밀한 말을 고한다고 속여 에글론에게 접근해 그의 배의 내장을 관통하는 칼을 꽂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란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에훗은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심판은 집행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결과로 고통 받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에훗은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은 주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대신 에훗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 분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 죄로부터 영원토록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가 아직 더 남았습니다. 에글론에게 일어났던 일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참혹한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는 것과 맞서 싸우도록 우리의 모든 관점을 바꾸십시오. 믿음 없음과 불순종의 결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주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들보다 참혹합니다. 믿음 없는 삶은 가치가 없습니다. 36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36).